



트라이애슬론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호텔 앞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전 제36차 이사회와 오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에서 대한철인3종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대한체육회, "선수들 피해 고려"… 협회 임원진 모두 해임

대한철인3종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제36회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의 임원진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단체 운영을 맡게 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 고 최숙현 선수가 팀 닥터와 감독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날 말 세상을 떠났고, 협회를 향한 비난이 거세졌다.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은 지난 24일 협회장에서 자진사퇴했다.

대한체육회는 협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이기흥 회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결정을 했다. 선수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단체로 지정해 내부 문제를 살피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관리단체 지정보다 무거운 처벌인 준가맹단체 강등이 예상되기도 했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준가맹단체로 강등되면 인건비,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 줄어든다. 실업팀이 축소될 수 있어 선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회장은 "협회가 강등되면 선수들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수들의 대회 출전이나 진로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체육계 폭력 사건은 잇을 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때 뿐이다.

이 회장은 "책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조직 문화를 모두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도 이번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과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고 최숙현 선수는 생전 대한체육회에도 가혹행위에 시달린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날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개최 후 고 최숙현 선수의 영상을 틀기도 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반박하고,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보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의 자체적인 방책에 대해서도 "꿈 (조치가) 나올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집회를 열어 "강등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지도자들은 협회의 강등을 피하며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지도자는 "협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1골 1도움' 전북현대 이승기, K리그1 13라운드 MVP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이승기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3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FC서울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전북의 3-0 승리를 이끈 이승기를 13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29일 전했다.

이승기는 해당 경기에서 전반 44분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고, 후반 17분에는 이적생 구스타보의 헤딩골을 돕는 크로스를 올렸다.

전북은 4경기 만에 승기를 거두며 선두 울산 현대 추격을 예고했다.

이승기는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에서 김인성(울산), 세경야, 정승원(이상 대구)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공격수 부문에선 득점 선두 주니오(울산)를 비롯해 일류첸코(포항), 박상혁(수원)이 선정됐고, 박주호(울산), 홍정호, 이용(이상 전북)이 수비수 부문에 포함됐다. 최고 골키퍼는 도움을 기록해 눈길을 끈 대구의 구성윤이다. 베스트팀은 울산, 베스트매치는 울산과 상주 상무의 경기가 선정됐다. /뉴시스

도체육회, 사무처 직원 승진인사 단행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8월 1일자로 사무처 직원의 승진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4급(본부장), 5급(과장), 6급(팀장)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4급(본부장)에는 이동희 경영관리장, 5급(과장)에는 장인석 경기운영팀장, 6급(팀장)에는 김희수 경영관리과 대리가 각각 승진 됐다.

또한 전북체육회 결원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도 실시된다.

직원 채용은 민간체육회장 체제 전환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령 적용을 위한 법률분야 직원(6급) 1명,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7급) 1명, 일반행정직 9급 1명 등이다.

채용서류 공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회관 3층 경영관리과(063-250-8405)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



이동희 본부장 - 이동희 경영관리장
장인석 과장 - 장인석 경기운영팀장
김희수 팀장 - 김희수 경영관리과 대리

류는 전북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조직 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립하고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승진을 계기로 전북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안열린다'

전북도, 코로나19 여파로 조직위 운영위원회 열어 대회 취소 결정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던 김운용컵 국제오픈대회도 취소하기로

전북도가 오는 10월, 11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규모 태권도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체육회 등 관련 기관이 참석,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회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세계태권도연맹 승인대회(G1)인 제4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전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도체육회 등은 태권도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7~8월에 개최 예정이던 2개 대회를 한차례 연기하는 등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선수단의 참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 접촉하는 태권도 대회의 특성상 참가 선수단 안전이 우려됐다.

아울러 최근 도내 및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재확산 위험이 커져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회를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유인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기로 했던 대규모 국제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내년도 개최되는 대회는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수립해 더욱 풍성하고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축구협회, 프랑스협회와 업무협약

대한축구협회가 프랑스축구협회와 심판, 기술교육 및 시설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및 전문 지식의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29일 "프랑스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포츠 시설 ▲심판 ▲여자 축구 ▲유소년 축구 ▲스포츠 의·과학과 관련한 기술 및 전문 지식을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기간은 4년으로 2024년 6월까지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